

5/31/20

설교 제목: 언약 안에서 아브람의 가나안에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정립시키시는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14 장 1-18 절

- (창 14:1)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 (창 14:2)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소알 왕과 싸우니라
- (창 14:3) 이들이 다 싯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 (창 14:4) 이들이 십이 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십삼년에 배반한지라
- (창 14:5) 제십사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 (창 14:6)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 (창 14:7)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 (창 14:8)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 (창 14:9)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 (창 14:10) 싯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 (창 14:11)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 (창 14:12)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 (창 14:13)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 (창 14: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창 14:15)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창 14: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창 14: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창 14: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본문은 BC 2082년 가나안 지역에서 발발한 전쟁과 그 와중에 포로가 된 롯을 아브람이 구출해
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국가 간 전쟁입니다.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는 도성들이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도성은 가인이 세웠는데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 에덴 동쪽 낫 땅에 거주하며
인류 최초로 성을 쌓았습니다.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자 불안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세운
것입니다.

(창 4: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낫 땅에 거주하더니

(창 4:17)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 후 네피림들과 세상의 영웅들이 크고 작은 도성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성들은 그들의 폭력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받고 모두 파멸
되었습니다.

그후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 남은 노아의 아들 함과 그 후손들이 다시 도성들을 세웠고 도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국가는 함의 후손,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의해 시날 땅에 세워졌습니다.

(창 10:8)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창 10:9)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창 10:10)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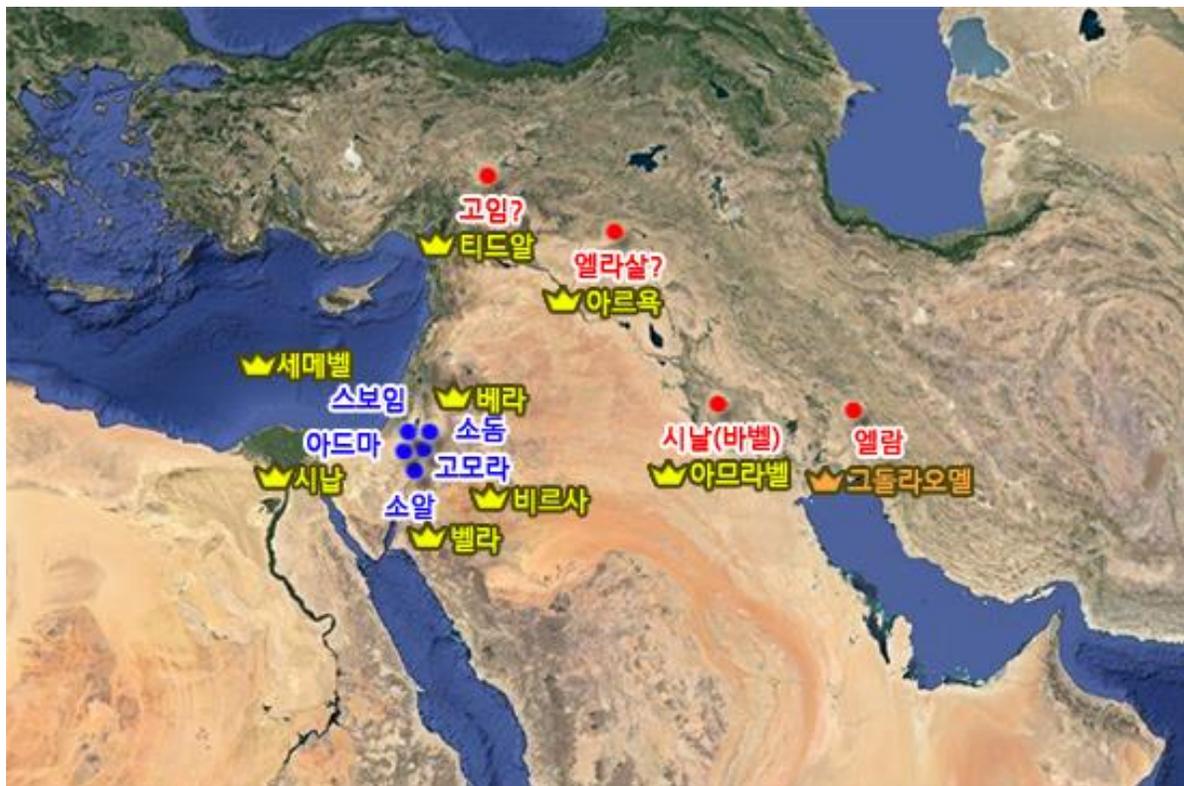
(창 10:11)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창 10:12)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세워진 도시 국가들은 전쟁을 일으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시 국가 왕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연합체를 구성하였고 연합체 안에서 가장 힘이 센 도시 국가 왕을 맹주로 세워 그와 종주권 조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본문의 전쟁은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 개국 연합체 시날(바벨), 엘라살, 엘람, 고임과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의 5 개국 동맹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간에 조공 문제로 발발한 전쟁입니다.



원래 이들은 한 연합체였고 이들 국가 중 가장 힘이 센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들 연합체의 맹주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에 위치한 5 개 국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벨라(지금은 소알이라고도 부름)도 엘람에게 12 년 동안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13 번째 되던 해부터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에 위치한 5 개 국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벨라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배반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12 년간 바쳐오던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가나안 지역에 발생했던 기근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추정해 봅니다.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있던 아브람도 살아보겠다고 식솔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 갔다가 호된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에 위치한 5 개 국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는 기근으로 인해 자국 백성도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조공을 바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 개국 왕들 곧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고임 왕 디달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 이들을 침공했고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 5 개국 왕인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소알 왕도 동맹군을 만들어 이들에게 대항했습니다.

(창 14:1)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창 14:2)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소알
왕과 싸우니라

(창 14:3) 이들이 다 싯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창 14:4) 이들이 십이 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십삼년에 배반한지라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들은 시리아, 팔레스틴 북부, 요단 동안, 사해 동안의 군사 도로를 따라 가나안 족속들을 쳐 내려왔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역을 다 휘저어 놓았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 가데스 지역의 아말렉 족속과 하사손다말 지역의 아모리 족속도 정복하였습니다.

(창 14:5) 제십사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창 14:6)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창 14:7)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 5 개국 동맹군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주축이 된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에 맞서기 위해 싯딤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싯딤 골짜기에 널려 있는 역청 구덩이를 이용하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창 14:8)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시리아, 팔레스틴 북부, 요단 동안, 사해 동안의 군사 도로를 따라 가나안 족속들을 쳐부수고 내려온 그 사기를 몰아 싯딤에서 가나안 남부 사해 연안 5 개 동맹군들과 일전을 벌입니다.

(창 14:9)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역청 구덩이가 많은 곳을 전략적으로 택해 싯딤에서 전쟁을 벌린 사해 연안 5 개 연합군들이지만 이들은 오히려 이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창 14:10) 싯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역청 구덩이에 빠졌고 나머지 세 나라의 왕들은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가나안 남부 사해 연안 5 개 동맹군들이 패해서 도망가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양식을 모조리 약탈해 갔습니다.

(창 14:11)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창 14:12)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인 롯도 이 소용돌이 속에서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전리품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이국 땅에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히브리 사람이 헤브론에 거하고 있던 아브람에게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창 14:13)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롯이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곧장 가신 318 명을 데리고 승리에 고무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을 뒤쫓아 갔습니다.

(창 14: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창 14:15)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창 14: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데리고 간 가신 318 명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였습니다.

'길리고'란 출생하다는 뜻으로 여기서의 의미는 전쟁에서 잡아왔거나 시장에서 사온 종이 아닌 아브람이 소유한 종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아브람은 밤에 가신들과 함께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급습하였고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야간 기습에 놀란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쳤습니다.

이에 아브람과 가신들은 호바까지 뒤쫓아 가서 조카 롯과 그가 빼앗겼던 재물 뿐만 아니라 부녀와 친척 모든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 왔습니다.

비록 롯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지만 아브람은 롯이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듣자 주저하지 않고 호바까지 쫓아가서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무찌르고 기어코 롯을 구해 왔습니다.

롯 뿐만 아니라 함께 잡혀갔던 다른 사람들과 재물까지도 다 찾아왔습니다.

이 일로 아브람은 소돔 왕과 살렘 왕으로부터 크게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창 14: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창 14: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모세로 하여금 성경 이곳에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씌여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는 자들의 앞길은 처음에는 험통한 것 같아도 종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아브람을 떠나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와 동산같고 애굽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러니 생각대로라면 롯은 땡땡거리며 번영을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롯은 처음에는 자신의 세상적인 선택으로 번영을 누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상치 못했던 전쟁이 일어나 포로가 되고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롯은 세상을 좇지 말고 하나님을 좇아야만 했습니다.

롯이 세상적으로 좋아 보여 택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악을 일삼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거기 들어가면 자신도 그들에게 동화되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초에 악의 소굴인 그곳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적인 번영 앞에 영의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전쟁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롯을 통하여 세상 탐욕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의 종국을 보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 동맹체가 전략을 짜 싯딤 골짜기에서 전장을 벌렸지만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사용하셔서 악이 만연했던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 동맹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마찬가지로 악했던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도 아브람과 그가 이끄는 318 명의 가신들을 사용해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당장의 험통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철저하게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세째,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 수, 무기의 우수성, 전투 전략 등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아브람은 고작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 명의 가신을 데리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들 318 명의 가신들이 집에서 길린 자들이라 충성심이 강하고 잘 훈련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당시 최강국이었던 엘람이 주도하는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람은 이 전쟁에서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이기고 최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시 24:7)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 24:8)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삼상 17: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째, 만왕의 왕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경영하고 계시면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으로 하여금 전쟁에 끼어들어 승리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을 아브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아브람이 가나안에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확고한 지위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지키셔서 구속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 견뎌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승리자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지쳐 견디기 어려우십니까?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318 명의 가신 데리고 당시 최강국이었던 엘람이 이끄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격파한 아브라함과 같이, 조약돌 5 개로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과 같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이 영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